ZOOM -IN

최근 상장기업 자기주식 취득 공시의 특징과 시장 반응

2024년부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은 그 일환의 하나로 주주환원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. 2026년 3차 상법 개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내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소각 또한 증가하고 있다. 2024년부터 2026년 9월 28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자기주식 취득공시는 282건이며, 그 중 280건이 주가안정과 주주가치 제고, 임직원 보상을 위한 목적이었다.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시일 전후 평균 누적초과수익률은 4.13%로 나타났다.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 후 활용계획을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, 해당 공시를 기업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만 보기에 한계가 있었다. 보유·처분계획의 공개 범위 확대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**2024년부터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시작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증가하였고, 2026년 3월 개정 상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주식소각도 증가하고 있음**

— 2026년 3월 6일 시행 된 3차 상법 개정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각을 의무화하여,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

• 6월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자기주식 보유와 처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기업가치 제고를 뒷받침[1)]

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후 1년 내(법 시행 이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법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내) 소각하여야 하고, 임직원 보상 ·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 ·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[2)]

•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유·처분계획 및 이행내용을 공시하도록 변경: 기존에는 자기주식을 1%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에만 적용되었으나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

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주환원 금액은 2024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, 그 중 자기주식 소각 금액의 경우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54.0% 증가한 21.4조원[3)]

---

1) 금융위원회, 2026. 6. 23, 자기주식 보유·처분 공시 강화해 기업가치 제고 뒷받침한다!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(6. 23), 보도자료.

2) 금융위원회, 2026. 3. 30, 3차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기주식 보유·처분 공시도 강화됩니다 -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제도화에 따른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(3. 31~5. 11), 보도자료.

3) 한국거래소, 2026. 9. 3,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('26.8월) 발표, 보도자료.

〈표 1〉 최근 3년 상장기업의 주주환원 추이

(단위: 조원)

구분	2023년	2024년	2025년
자기주식 취득 금액	8.2	18.8	20.1
자기주식 소각 금액	4.8	13.9	21.4
현금배당 금액	43.1	45.8	50.9

주 : 1) 코스피·코스닥시장의 연도별 최종 공시 기준
2) 자기주식 취득 : '자기주식 취득 결정' 및 '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 결정' 공시
3) 자기주식 소각 : '주식 소각 결정' 공시
4) 현금배당 : '현금배당 결정' 공시
자료: 한국거래소(2026. 9. 3)

□ **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공시한 자기주식취득결정은 총 282건으로, 이 중 280건은 주가안정과 주주가치 제고, 임직원 보상을 목적으로 한 취득으로 분류[4)]**

— 2024년부터 2026년 9월 28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공시한 자기주식취득결정의 취득목적을 살펴보면 총 282건이었으며, 280건은 밸류업관련 목적 취득, 2건은 감자 등의 목적

• 2024년 81건에서 2025년 106건으로 전년 대비 30.9%증가하였으며, 2026년 9월 28일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85건보다 8건 증가한 93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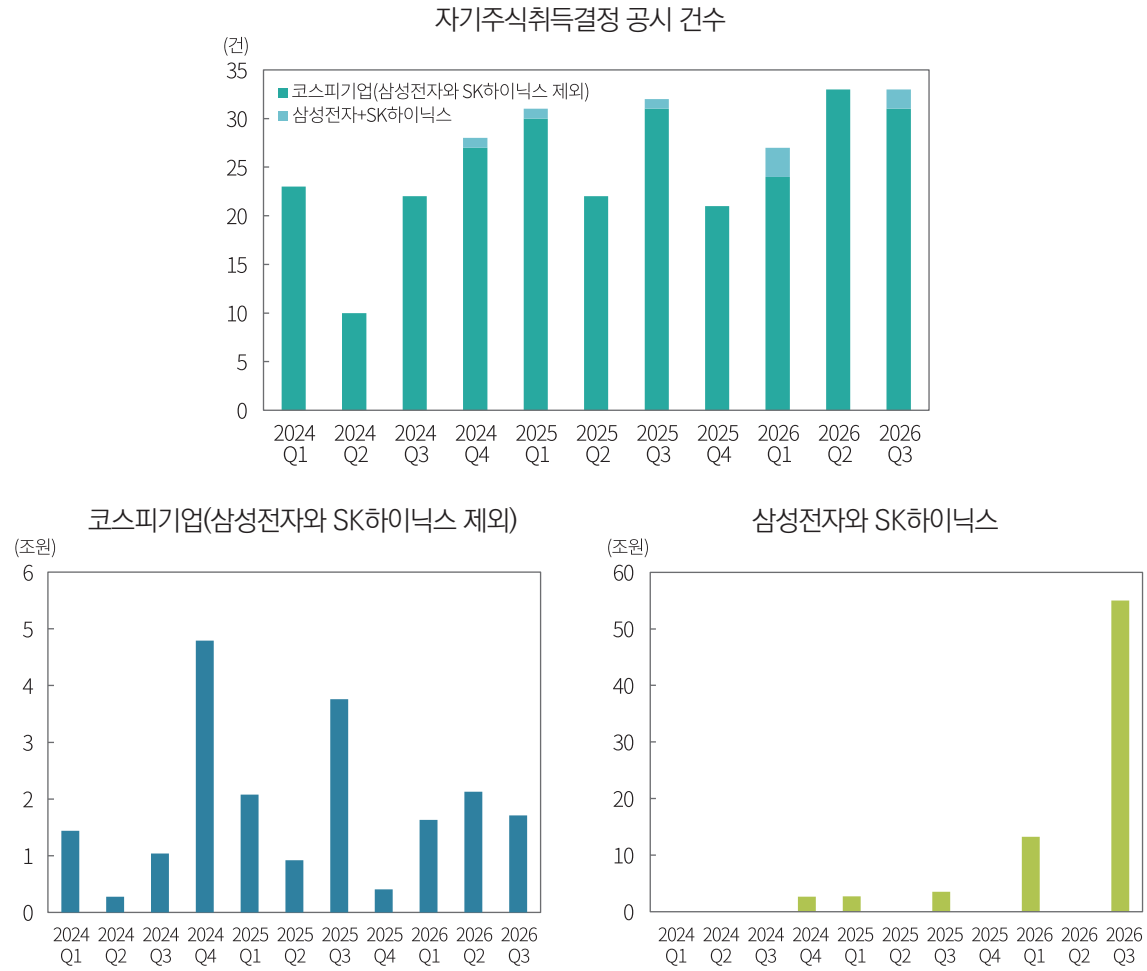
— 코스피 대상기업 전체를 금액 기준으로 보면 2026년 1분기에 임직원 보상을 위한 목적의 취득이, 3분기에는 소각을 위한 취득이 크게 증가하였으며, 이는 각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시로 인한 액수 증가

• 8월에는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·소각을 결정

• 〈그림 1〉 두 번째 금액별 추이에서는 코스피기업과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를 나누어서 비교

4) 금감원 DART 내 OpenDART에서 공시정보활용마당의 데이터를 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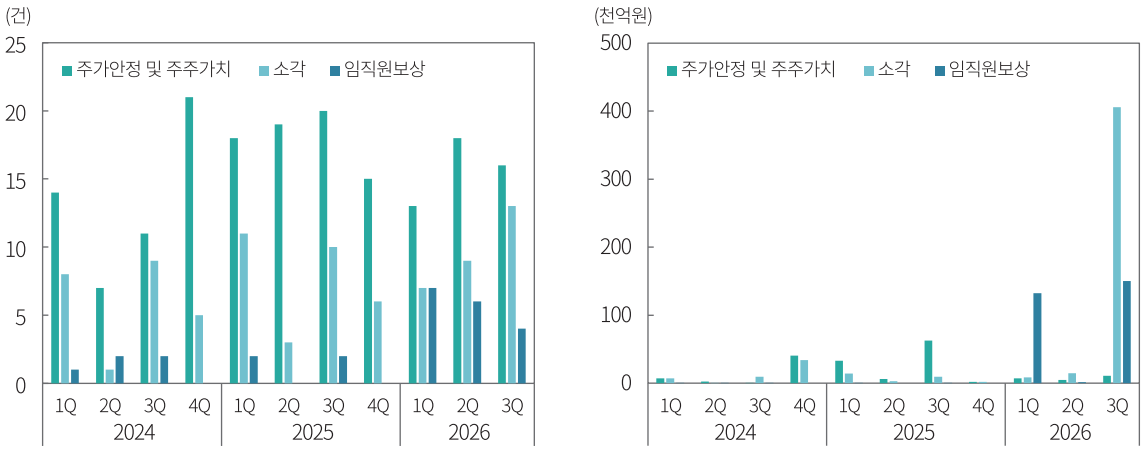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〉 코스피기업의 자기주식취득공시 추이



주 : 1) 공시정보활용마당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자기주식취득결정공시를 취합
2) 금액의 경우 실제 취득금액이 아닌 공시보고서에 나타난 취득예정금액
3) 2026년 3분기의 경우 9월 28일까지의 집계

자료: 금감원DART

〈그림 2〉 자기주식취득의 목적별 구분



주 : 1) 공시정보활용마당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공시를 취합
2) 금액의 경우 실제 취득금액이 아닌 공시보고서에 나타난 취득예정금액
3) 2026년 3분기의 경우 9월 28일까지의 집계
자료: 금감원DART

□ **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자기주식취득 공시를 한 이후 공시일을 전후로 누적초과수익률(CAR)을 분석해 본 결과 약 4.13%의 수익률을 나타냄**

— 공시일전 후 각 3거래일을 관찰한 누적초과수익률(CAR(-3, +3))은 2024년에 4.85%, 2025년에 2.64%, 2026년에는 5.21%를 보여주었음

• 수집표본 280건, 109개 기업, CAR(-3, +3) 유효 표본 278건, 108개 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2026년의 경우 1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의 집계

• 추정기간은 공시일 기준 [-150, -21] 거래일이며, 일별수익률 사용

— 취득목적별로 살펴보면, 기업가치제고를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취득 공시의 경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으며, 주식소각의 경우 3.42%, 임직원 보상을 위한 취득의 경우 0.59%

— 2026년의 평균 누적초과수익률은 2025년보다 높아졌으며, 양의 누적초과수익률(CAR)인 비율은 72.64%에서 61.96%로 전년 대비 10.68%p 하락

〈표 2〉 연도별 누적초과수익률

CAR(-3,+3)	유효공시 수	평균	중앙값	CAR가 양(+)인 비율
기간 전체	278	4.13%	2.68%	70.14%
2024	80	4.85%	3.65%	76.25%
2025	106	2.64%	2.24%	72.64%
2026. 9. 28	92	5.21%	2.68%	61.96%

〈표 3〉 취득목적별 평균 누적초과수익률

CAR(-3,+3)	기업가치	주가안정	주식소각	임직원 보상
기간 전체	5.29%	1.75%	3.42%	0.59%
2024	6.39%	2.22%	3.80%	-2.99%
2025	3.21%	2.19%	2.18%	-2.26%
2026. 9. 28	7.23%	0.51%	4.40%	2.42%
유효 공시 수	156	15	82	25

주 : 1) 공시정보활용마당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자기주식취득결정공시를 취합
2) 주식소각의 경우 별도의 소각공시가 아닌 취득 공시의 목적에 소각을 명시한 경우
3) 목적별 결과는 기업과 연도 구성을 통제하지 않은 기술통계
자료: 금감원DART

□ **우리나라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, 취득 후 차후 활용계획을 알기 어려웠으나, 이제는 자기주식 처분계획에 대한 공시를 통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, 향후 긍정적 효과 기대**

— 전통적인 주주환원 이론이 작동하는 경우 자사주 매입은 주주환원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나,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 개정 이전에는 자기주식 취득 이후 장기보유하거나 처분계획에 대한 공시가 일부 기업에 국한되어 있어 자기주식 취득 후 기업과 주주 간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

• 박진혁 외(2025)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자사주 취득은 기업과 주주 간 정보 비대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, 자사주 보유의 경우 정보 비대칭을 증가시키고, 소각의 경우 정보 비대칭을 감소시켜 자사주 소각이 기업과 주주 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[5)]

— 3차 상법개정 이후에는 취득 후 소각이 의무화되고 보유 처분 계획에 대한 공시를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명확히 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기주식 향후 활용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어, 기업과 주주 간의 정보 비대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

• 소각 의무화 및 처분 계획 공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, 취득 공시 당시의 시장 반응 뿐만 아니라 차후 계획의 실제 실행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

선임연구원 이종은

5) 박진혁·이장우·최재원, 2025, 자사주를 통한 주주 환원 정책이 기업과 주주 간 정보 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, 한국증권학회지 제54권 1호, 1-39.